

# “쉿!” 소리없이 日製 앞선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차

그랜저, 최단기간 2만대 판매  
쏘나타, 솔라루프 시스템 탑재  
3년연속 20만대 이상 팔려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하이브리드차(HEV)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 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그랜저와 쏘나타, K5, K7 등 주력 세단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 가격경쟁력과 연료효율성 등 기술 경쟁력을 통해 판매량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

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은 올해 판매량 2만대를 넘어서며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8개월 10영업일 만에 세운 기록으로 지난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세운 최단기간 연 2만대 판매 기록(10개월 3영업일)에서 약 2개월을 단축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국내 시장 최초로 연간 판매 3만대를 넘어서고,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누적 판매 10만대 돌파도 유력하다.

현대차가 올해 초 출시한 8세대 쏘나타를 기반으로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도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7월 말 출시 이후 8월 휴가기간과 9월 추

석연후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수가 3600대 이상으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태양광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 주행가능거리를 1년에 최대 1300km 증가시키는 ‘솔라루프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한층 더 진보한 친환경차로 각광 받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능동 변속제어 기술(ASC)을 적용해 기존 차량 대비 30% 빠른 변속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타인과 자동차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키 시스템 등 첨단기능들을 대거 탑재해 이용 편의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현대·기아차는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모델 판매량을 확대하며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한 하이브리드차는 국내 34만1702대, 해외 66만6136대 등 총 100만7838대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현대차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모델 국내 출시로 친환경차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이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 글로벌

누적판매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어선데 이어 1년만인 2017년에는 20만대 고지를 밟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11만7109대를 판매해 3년연속 20만대 이상 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누적 판매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베스트셀링카는 기아차 니로이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인기로 같은기간 31만8917대가 판매돼 100만 돌파의 주된 동력이 됐다. 니로는 내수시장에서도 사상최대 판매를 올리는 등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역대급 신차 및 라인업 확대로 가파

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차가 투싼과 쏘나타, 기아차는 쏘렌토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각각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은 10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 선택의 폭도 크게 넓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종료와 일반차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대·기아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를 통해 내수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



LG유플러스 모델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에서 한복을 입고 ‘U+로드’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 LGU+, 경북공 서촌에 ‘U+로드’ 운영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19개 상점서 멤버십 혜택

LG유플러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생활문화지원을 위해 ‘2019 종로 한복축제’를 후원한다.

이와 연계해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에서 골목 상권 프로젝트 ‘U+로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U+로드는 LG유플러스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 상권과 제휴해 최대 50% 할인,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이다.

서촌마을, 중구 필동, 인천개항장, 경리단길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18년 최초로 U+로드 행사를 진행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7길, 서촌마을을 다시 찾아간다.

경북공 서쪽에 위치한 서촌마을은 한옥마을, 통인시장 등 많은 볼거리와 음식점 및 상점이 있어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유명하다.

LG유플러스는 자하문로7길에 위치

한 19개 상점에서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한다.

‘통인스윗’, ‘카페피움’ 등 7개 카페와 ‘영화루’, ‘취천루’ 등 8개 음식점에서 이벤트 상품 주문 시 50% 할인 또는 1+1 혜택을 제공한다.

의류점인 ‘H컬렉션’은 남성 셔츠를 할인 금액에 제공하고, 액세서리 전문점 ‘모메이’는 은 팔찌를 50% 할인한다.

LG유플러스는 U+로드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현장 참여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휴 상점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응모권을 작성해 서촌 거리에 있는 이벤트 부스에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LG푸리카어미니’ 등의 경품을 제공하고, 하루 선착순 30명에게는 제휴 상점 두 곳 이상 방문시 ‘경북공 야간특별관람권’을 증정한다.

U+로드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은 U+멤버십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받을 수 있다. 할인율과 혜택은 제휴 상점 및 제품별로 상이하다. 경품 당첨자는 10월 8일 이후에 개별 연락 받는다.

/김나연 기자 silkni@

## 운전석 오른쪽도 안전... 차세대 에어백 개발

현대·기아차 국내외 특허 획득  
측면 충돌시 운전자 부상 최소화  
시트 배열 자유롭게 이동 가능

현대·기아자동차가 센터 사이드 에어백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한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측면 충돌 시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해주는 첨단 안전기술이다.

18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펼쳐져 승객 사이의 신체 충돌로 인한 부상을 막아준다. 운전자 혼자 탑승한 경우에도 작동해 보조석 쪽의 측면 충격이나 유리 조각 등 충돌 파편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한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운전석 시트 오른쪽 내부에 장착돼 있는데, 충격이 감지되면 0.03초만에 부풀어 오른다.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ACEA)의 통계에 따르면 차량 측면 충돌 사고 시 탑승자끼리의 충돌이나 내장재 또는 파편의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 비율이 약 45%에 이른다. 특히 탑승자의 머리끼리



현대기아차 개발 센터 사이드 에어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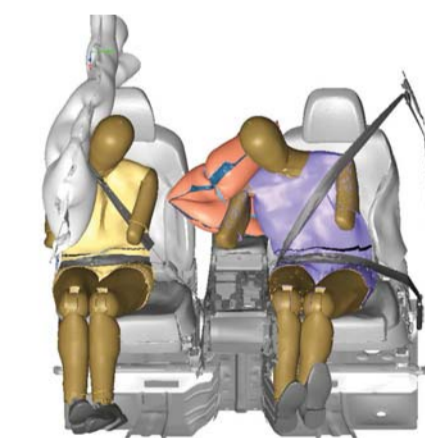
충돌할 경우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개발한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승객간 충돌 사고로 인한 머리 상해를 약 8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자체 실험 결과 나타났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에 독자적인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형태를 완성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획득했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에는 에어백이 힘 없이 펼쳐지지 않고 탑승자의 하중을 지지해줄 수 있도록 ‘데더’라는 끈 모양의 부품이 에어백을 감싸며 잡아주는 데, 현대·기아차는 데더와 에어백의 형태를 간결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1kg이 넘는 타사 제품 대비 약 50%의 중량 절

감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얇은 시트를 비롯해 다양한 차종에도 장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 시트 배열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미래 자율주행차에는 에어백이 시트에 장착되는 방식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기아차의 에어백 소형·경량화 기술은 미래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에어백의 활용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 순차적으로 탑재함으로써 국내외 안전평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기아차 센터 사이드 에어백.

## LS니꼬동제련, 협력사 초청 화합 도모

LS 니꼬동제련이 동제련업계를 불러모아 화합을 다짐했다.

LS니꼬동제련은 18일 온산제련소에서 ‘2019 전기동 고객사 파트너스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시영 대장 회장과 박우동 풍산 사장, 손인국 이구산업 회장 등 10개 고객사 핵심인사 16명이 참가해 제련소를 견학하고 기술력과 혁신

을 확인했다.

특히 LS니꼬동제련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인 ‘ODS 프로젝트’ 준비과정과 현황을 소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서 간담회를 통해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를 돈독히 했다. 원료 확보경쟁과 제조비 상승 등 이슈에도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LS니꼬동 제련은 동가공협회 회원

사로 파트너사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협력사 임원을 대상으로 헛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은 “LS니꼬동제련이 세계적인 제련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고객사들의 신뢰와 협력이었다”며 “대한민국 동산업계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사들과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